

우리의 미래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3학년 1반 문수호

친구의 얼굴이 궁금해요?

이웃의 얼굴은?

어느새 우리는 얼굴을 잃어 간다.

우연히 앞서가는 차에서 검정 매연이 진하게 퍼져 나왔다. 숨이 막혀오는 듯 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하나둘 마스크를 쓰는 우리 모습들…….

점점 우리의 모습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책가방 대신 산소통을 메고 다닐 매래가 오지 않을까?

집밖을 나가는 것이 해외 나가는 것보다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나무를 심는 만큼 산소를 돌려받는 산소 은행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숲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면세혜택을 주지는 않을까?

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을 받는 산소 수입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나무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집안에 하나둘 가전이 늘어갈 때…….

의문이 든다.

꼭 이 물건들이 필요한가?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에 의존했을까?

지금은 이런 물건들을 선택적으로 구비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생겨날 테지…….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생각에 문득 빠져 인상이 찌푸려진다.

햇빛이 잘 드는 남향집에 빨래 널기가 좋다며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우리 엄마.

황사와 메세먼지 주의보로 빨래는커녕 문도 열어놓지 못한다.

세상이 급변하고 지구가 오염되어가고 있는 지금 내가 바라는 ‘푸른 푸른 세상’은 다시 찾기 어려운 것일까?

마음껏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놀며 ‘큰숨’을 실 수 있는 지구는 존재 될 수 있을까?

가끔 길가에서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들과 마주한다.

예전 같으면 범죄자의 모습일 테지…….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을 테지.

걷기 운동을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다.

산소통을 메고 다닐 그날이 오기 전에 난 산소를 저장해 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 몇 년산 산소~~^^ 오래된 산소일수록 비쌀까? 양주처럼?

부모님께 지금부터 산을 사서 나무를 심자고 해볼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난 산소통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올해부터 나무관리사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격증과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와 일맥을 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다.

산소통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누가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시대가 올지 알았으며, 생수가 팔릴 것이라고 상상했겠는가?

요즘은 차안에 공기청정기도 생겼다고 한다.

집안에서만 쓰던 공기청정기가 차안에서도 필요한 시대이다.

그렇다면 길을 걸을 때도 개인용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시대는 머지않은 셈이다.

사업가로, 발명가로 또는 디자이너로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

‘푸른 푸른 지구’를 꿈꾸는 평범한 나여도 좋다.

'큰숨'쉬며 햇볕에 마음껏 빨래를 말리는 엄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충분하다.

우리는 지구인이고,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집이다.

집을 깨끗이 쓰고 다음 집주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